

# 한글대장경 목록에 대한 고찰

박종린\*

##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II. 한글대장경 간행 목록의 세 시기
  - 1. 구판 한글대장경목록(1965~1985)
  - 2. 신판 한글대장경목록(1985~2001)
    - 1) 세로쓰기판 한글대장경
    - 2) 가로쓰기판 한글대장경
  - 3. 신편제 한글대장경목록(2001~2012)
- III. 맺는말 -신편제 한글대장경의 조속한 간행을 염원하며-

## 요 약

한글대장경의 간행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제1기 구판 한글대장경(1965~1985), 제2기 신판 한글대장경(1985~2001), 제3기 신편제 한글대장경(2001~2012)이 그것이다. 구판한글대장경은 초창기부터 1985년까지 간행된 한글대장경으로 일련번호를 붙이면서 고동색 표지로 간행한 것을 말하고, 신판한글대장경은 한동안 일련번호 없이 간행하다가 1994년부터 다시 일련번호를 붙이면서 간행한 검은색과 청회색의 이중표지로 된 것을 말하고, 신편제 한글대장경은 앞으로 간행해야할 한글대장경을 말한다.

구판한글대장경은 치밀한 계획과 사전 준비의 부재로 인해 일련번호 순서로

---

\* 동국역경원 편집부

차례대로 간행하는 일을 중간에 멈출 수밖에 없었고, 신판한글대장경은 구판이 가진 문제점을 극복함과 동시에 운영난을 해결하기 위해 일련번호 체제를 버리고 단행본 형태로 얼마동안 간행하다가 중간에 다시 일련번호를 매기면서 완간한 현재의 한글대장경을 말한다. 신판제 한글대장경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통일된 체제하에 부별번호와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형태로 새롭게 간행하고자 하는 미래의 한글대장경인 것이다.

신판제 한글대장경을 어떻게 간행할 것인가는 하는 기본 방침은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 번째가 고려대장경 속에 들어가 있는 경전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두 번째가 고려대장경에는 없지만 기존에 번역한 경전도 다 포함시킬 것인가? 세 번째가 고려대장경과 신수대장경에 다 같이 수록되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번째가 고려대장경에는 없지만 신수대장경과 만족장경 등에 있는 중요경전을 어느 범위까지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원칙과 기준 아래서 신판제 한글대장경을 간행하여야 하리라고 본다.

## I. 들어가는 말

한국불교계가 비구·대처간의 심각한 갈등으로 내홍을 겪다가 1962년 마침내 그간의 분쟁을 종식하고 통합종단 대한불교조계종을 발족하게 되었다.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종단을 재건하고 현대종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종단 3대 지표의 하나로 역경사업이 도제양성(교육)과 포교사업과 더불어 설정되었다. 그간 간간이 불경이 번역 간행되긴 했어도 부처님경전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인 번역 시도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통합종단이 발족되고 역경사업이 중점과제로 지정되면서 이에 대한 필요성이 전면으로 부각되기 시작했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동국역경원이 설립되게 되었다. 1964년 동국역경원이 정식으로 발족되기 전인 1961년 법보원이라는 출판사가 먼저 설립되었고, 법화경, 열반경을 비롯한 몇몇 경전들이 운허스님에 의해 번역 간행되기 시작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동국역경원이 본격적인 역경사업에 뛰어 들 수 있는 준비를 갖추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당시 해인사에 소장된 고려대장경(高麗大藏經)을 한글로 완간한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던

것이다. 당초 예상은 총 250책 한질로 간행할 예정이었다고 하나 사전의 치밀한 계획 하에 역간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계획대로 되지 못했고, 중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거의 중단되다시피 한 적도 있었으며, 당초 계획했던 일련번호 부여가 여의치 않으므로 해서 중간에 일련번호체제의 간행을 중단하고 단행본 형태로 간행체제가 변경되기도 했다. 그 후 다시 일련번호 부여형태를 취하긴 했지만 이미 간행체제가 어긋남으로 해서 부별(部別) 내지는 일련번호 형태의 짜임새 있는 한글대장경의 간행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

본고에서는 초기부터 지금까지 간행해온 한글대장경의 간행역사를 목록을 통해서 살펴보고, 향후 신편제(新編制) 한글대장경 간행을 위한 목록에 관해 언급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한글대장경의 간행역사를 일단 세 단계로 구분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 첫 단계가 역경원을 개원해 한글대장경 첫 권을 간행한 1965년부터 일련번호 부여를 버리고 단행본 형태로 간행하기 시작하기 전인 1985년까지이고, 두 번째 단계가 단행본 형태로 간행하기 시작한 1985년부터 다시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고려대장경을 완간한 시점인 2001년까지이고, 세 번째 단계가 개역(改譯) 전산화(電算化) 사업이 시작된 2001년부터 완료되는 시점인 2012년쯤으로 보고자 한다. 앞의 두 단계는 완료되었기에 이 시기 동안 간행한 내용을 살펴보고, 마지막 단계는 개역 전산화를 마치고 새로운 편제의 한글대장경을 완성해야할 시기이기에 신편제 한글대장경을 어떻게 간행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개괄적인 문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 Ⅱ. 한글대장경 간행 목록의 세 시기

편의상 제1단계 한글대장경목록을 “구판 한글대장경목록(1965~1985)”이라 부르고, 제2단계 목록을 “신판 한글대장경목록(1985~2001)”이라 부르며, 제3단계 목록을 “신편제 한글대장경목록(2001~2012)”이라 부르기로 하며, 각 단

계별 간행목록에 대해 살펴볼까 한다.

## 1. 구판 한글대장경목록(1965~1985)

당초 한글대장경은 전250책 한질<sup>1)</sup>로 번역 완간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려대장경을 다 번역한다면 그쯤 되지 않겠는가 하는 추측일 뿐이었고, 실제로는 전139책으로 간행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목록<sup>2)</sup>까지 작성했었다. 이 목록은 고려대장경 목록과 일본의 대정신수대장경(大正新修大藏經) 목록을 참조하여 만든 것으로 인도찬술의 한역본을 중심으로 아함부를 비롯해서 전16부 1,418경을 번역하려 했다고 적고 있다<sup>3)</sup>. 그 후 한국찬술부와 사전부, 사회부, 남전부가 추가 되어 실제로는 총 20부로 구성되었다. 당초 목록 중 16부로 간행하려던 구체적인 계획 중에서 다른 부들은 그런대로 최소 한두 권씩이라도 간행했으나 밀교부 만큼은 전 12책으로 간행하려 했던 계획과는 달리 전혀 손을 대지도 못했다.<sup>4)</sup> 어쨌거나 16부 139책으로 간행하려던 당초의 계획은 밀교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나름대로 지켜진 셈이었다. 당초 계획에 없던 한국찬술부가 간행된 것은 민족문화의 계승과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진 일이었고,<sup>5)</sup> 사전부와 사회부의 전적들은 활용도 측면에서 먼

---

1) 한글대장경을 전250책으로 간행한다는 것은 실제로 시행된 것이 아니고 초대 역경 원장이었던 운허스님이 대장경을 번역한다면 전체 20만 쪽이 되고, 이를 800쪽 1책으로 계산할 때 대략 250책이 된다는 말에서 비롯되었고, 실제로 초기 간행계획 수립 시에는 전139책으로만 잡혀있다. [한글대장경월보, 제1호, 1965년 6월 30일, 1~2면]

2) 『한글대장경 간행목록』(동국역경원출판부, 1964년 12월 30일)

3) 「한글대장경월보」 제1호 참조.

4) 밀교부 경전을 번역하지 않은 것은 역경사업의 주체인 대한불교조계종이 선종을 포방했던 이유와 무관하지 않지만 당시 상황으로 봐서도 밀교계통의 경전보다는 현교 계통의 경과 논서의 번역이 더 시급했다고 봤기 때문에 밀교경전 번역에까지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5) 제3공화국 정부는 한글대장경 간행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었다. 당시 박정희대통령은 “민족정화(民族精華)”라는 친필 휘호를 동국역경원에 써서 보내 줄 정도로 큰 관심을 보여 주었다. 당시 정부는 대통령의 지시로 ‘민족문화유산의 계

지 번역된 것이라 볼 수 있다.<sup>6)</sup>

그러나 이 시기 한글대장경 간행 계획은 사전의 충분한 준비와 치밀한 계획과 충분한 준비,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여건이 구비되지 못함으로 해서 도중하차 할 수밖에 없었다. 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침으로써 역경사업의 지향점을 잃어버리고 헤매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역량의 부족이라는 말이 가장 적합한 말이 아닐까 싶다. 왜냐하면 이 역량이라는 말 속에는 한글대장경을 간행하고자 하는 줄기찬 신심(信心)과 열정,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종단과 동국대학교의 지속적인 관심을 통한 자금과 인력과 조직 등의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없었기 때문에 중간에 한글대장경의 완간 간행사업의 포기나 다름없는 전질 형태를 버리고 단행본 체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일련번호 부여형태에서 통권번호가 없는 단행본 형태로의 전환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무엇보다 일련번호 체제로의 간행을 지속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실제 간행을 함에 있어 번호 체계가 맞지 않았다는 점이다.<sup>7)</sup> 그러나 이것은 말 그대로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고, 더 큰 이유는 당시의 역경원은 한글대장경 간행사업을 지속적으로

---

승과 발전'이라는 문화시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고전을 번역해서 젊은 청소년들이 많이 읽게 하자는 운동을 벌이던 시기였고, 그에 발맞추어 역경원에서도 우리나라 고승들의 전적을 한글로 번역하고자 시도하였던 것이 한국고승부의 여러 책이 되었다.

- 6) 수록된 전적이 『전등록』, 『조당집』, 『종경록』, 『법원주림』 등인 것만 봐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 7) [표1]에서 보듯이 '아함부'의 경우 전체 8책을 예상해서 번호를 부여했으나 실제로는 10책이 간행됨으로써 번호부여 이후에 간행되는 책은 2-1, 2-2 하는 식으로 부여할 수밖에 없었고, 이 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반야부의 경우 600권 『대반야경』을 번역하는 것인데, 28책이 438권~478권이고, 29책이 그 다음 권부터인 479권~565권이 되어야 하는데도 건너 뛰어 566권~600권으로 되어 있으며, 그 앞부분인 제1권~360권까지를 번호를 부여하려고 할 때 번호가 맞지 않게 된다. 이런 경우는 『법원주림』에서도 발견되는데, 먼저 간행하며 잘못 부여해버린 번호로 인해 나머지 부분을 간행할 수 있는 번호가 없어서 버리고 말았다. 다행히 『법원주림』의 경우는 간행 당시 일련번호체제를 버리고 단행본으로 전환 해서 간행하던 시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번호의 불일치와 모순점을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었을 뿐이다.

벌어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거의 결여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sup>8)</sup> 역경원이 번역사업을 하는 기관이니까 명목상으로만 역경사업을 벌여 나가고 있었을 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거나 다름이 없다.<sup>9)</sup>

이렇게 근근이 명맥을 이어오던 구판한글대장경의 간행은 1985년 일련번호 없는 단행본 개념의 신판한글대장경을 간행하기 시작하면서 막을 내리게 되었다.<sup>10)</sup>

[표1] 구판 한글대장경 목록 비교 조건표

구분 부별	최초간행예정목록		실제간행목록			
	통권번호	책수	통권번호	책수	결번	비고
1. 아함부	1~8	8	1~8	10		2-1,2 8-1,2 로 분책
2. 본연부	9~16	8	9~18	10		
3. 반야부	17~37	21	26~29	4	19~25,	통권번호

8) 이런 말이 조금도 과장이 아닌 것이 초대 역경원장 운허스님이 입적하시고 2대 역경원장으로 취임한 영암스님은 역경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둘째치고라도 건강상의 이유도 있었지만 역경원에 거의 출근하지 않은 채 역경원에서 직원들이 알아서 하도록 사실상 방치상태로 두었었고, 이 시기 역경원 실무책임진은 상기한 일련번호체제로의 간행이 어려운 점을 포함해서 종단의 떨어진 관심과 재정상의 어려움, 불교용어사전 편찬의 필요성 등등을 이유로 한글대장경 간행사업은 주된 업무에서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또, 1982년부터는 『불교용어대사전』(현 가산불교문화연구원에서 추진 간행하고 있는 『가산불교대사람』의 전신) 편찬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필자도 1983년부터 이 사전 작업에 투입되면서 역경원 업무를 보기 시작했다. 주된 업무에서 밀려난 한글대장경 간행사업은 급기야 1985년부터 단행본체제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9) 이 시기 즉, 1982년~1985년 무렵 4년간 간행된 구판한글대장경은 7책으로 1년에 2책이 채 안 된다. 역경사업이 활발했던 시절 1년에 4~8책이 간행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사실상 손을 놓았던 시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10) 구판한글대장경은 『한글대장경167 한국고승16』을 끝으로 101책을 내고 막을 내리게 되었다. 통권번호로는 205번(『本生經IV(남전부5)』)까지 간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중간에 빈 번호가 많아 실제로 간행된 구판한글대장경은 총 101책에 불과하다.

한글대장경 목록에 대한 고찰(박종린)

					30~37	안맞음
4. 법화부	38~39	2	38	1	39	
5. 화엄부	40~46	7	40~45	5	44,46	
6. 보적부	47~52	6	47~52	4	48,49	
7. 열반부	53~56	4	53	1	54~56	
8. 대집부	57~61	5	57~61	5		
9. 경집부	62~77	16	62~77	14	63,68	
10. 밀교부	78~89	12	미간행			
11. 율 부	90~105	16	93~102	5	90~92, 96~100, 103~105	
12. 석경론부	106~108	3	107	1	106,108	
13. 비담부	109~125	17	121	1	109~120, 122~125	
14. 중관부	126~127	2	126	1	127	
15. 유가부	128~135	8	128~135	6	132,134	
16. 논집부	136~139	4	136~137	2	138,139	
17. 한국고승부			151~167	15	157,158, 168~180	
18. 사전부			181~186	6	187~194	
19. 사회부			195~200	5	198	
20. 남전부			201~205	5		
총 계	16부 139책		20부 101책			

## 2. 신판 한글대장경목록(1985~2001)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구판한글대장경은 1985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간행하지 않게 되었다. 구판이 막을 내리기 몇 개월 전부터 단행본 형태의 신판한글대장경을 간행하기 시작했다. 얼마 동안 구판과 신판이 같이 간행되었으나 오래지 않아 구판은 완전히 막을 내렸다.<sup>11)</sup> 구판과 신판을 구분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구판한글대장경과 신판한글대장경의 대략적인 구분

구 분	구판한글대장경	신판한글대장경	비 고
시 기	1985년 이전	1985년 이후	1985년도에는 동시에 간행함
겉모양	붉으스럼한 케이스에 고동색 단색 표지	열은 연두색 케이스에 검은색과 청회색 이중색 표지	
표제경명	한글대장경 1 아함부一	한글대장경 長阿舍經 東國譯經院	
활자크기	9piont 납활자, 세로쓰기	9piont 납활자본 세로쓰기 9.5piont 전산자본 가로쓰기	
판형,쪽수	국판, 700~850쪽	신국판, 450쪽~600쪽	책 크기만 조금 커짐
통권번호	케이스와 책에 동시 표기	1985년~1994년 : 없음 1994년~2001년 : 케이스에만 표기함	1994년도에는 통권번호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공존

신판 한글대장경도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1985년부터 1994년까지 출

11) 구판과 신판이 함께 간행된 것은 구판 책 배분 횟수로 보면 98회~101회에 해당하고, 구판통권번호로는 제185,186,197,167이며, 신판표제경명으로 보면 『종경록(宗鏡錄)』①·②, 『법원주림(法苑珠林)』③, 『부휴당집 외(浮休堂集 外)』 등 4책이다.



간된 세로쓰기판 한글대장경이고, 다른 하나는 1994년부터 2001년까지 새롭게 번역하면서 출간된 가로쓰기판 한글대장경이다.

## 1) 세로쓰기판 한글대장경

세로쓰기판 한글대장경은 구판과 내용과 체제가 똑같다.<sup>12)</sup> 단지 책의 쪽수와 겉모양만 다를 뿐이다. 구판과 다른 가장 큰 특징이라면 구판은 경명이 밖으로 도출이 되지 않아 그 책 속에 어떤 경이 들어 있는지 쉽게 알 수 없는 단점이 있었던 반면 신판은 경명을 밖으로 드러냄으로써 어떤 경이 들어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경이 하나일 경우는 쉽지만 작은 분량의 소경(小經)들이 많이 들어 있는 경우는 무슨무슨 경 외(外)라는 표기를 썼기 때문에 목차를 펼쳐보지 않는 한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렇지만 경명이 밖으로 나옴으로서 필요로 하는 경을 쉽게 찾을 수 있는 편리성이 있었던 것은 틀림이 없다. 또 구판은 활자조판본으로 활자조판 인쇄가 사라지기 전에는 활자조판 인쇄로 인쇄 되어 표면을 만져 보면 활자의 요철(凹凸)감을 느낄 수 있어 쉽게 구분할 수도 있다. 나중에 활자조판 인쇄가 사라진 후에는 판을 통째로 촬영해서 필름인쇄로 인쇄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책이라도 활자조판인쇄의 느낌이 없는 책이 있기도 하다.

이때 간행한 신판한글대장경의 또 하나의 특징은 판권을 인쇄하면서 통상 많이 쓰는 ‘초판’이라든가, ‘제1판’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중판’이라거나 ‘신판’이라는 애매모호한 용어를 썼다는 점이다.<sup>13)</sup> 이로 인해 새 책이 나온

---

12) 세로쓰기판 한글대장경은 구판을 복각한 것이 거의 대부분이나 그 중에 구판으로 간행되지 않았으면서 세로판형을 가진 한글대장경이 몇 종 있다. 이 판들은 1985년부터 1994년 말 사이에 새로 번역 간행된 한글대장경으로, 이름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종경록(宗鏡錄)』[3],[4], 『법원주림(法苑珠林)』[4],[5], 『대지도론(大智度論)』[1]~[5], 『대반야경(大般若經)』[1]~[20] 등 총 29책이다.

13) 이렇게 표기한 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었다. 1985년 구판한글대장경 간행 체제를 버리고 단행본 형태의 신판한글대장경을 간행하면서 옛날 간행한 책을 다시 간행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간행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 필요가 있었다. 내용은 동일하다 해도 겉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 대하는 독자들은 새로 낸 책이로구

줄 알고 구입한 독자들이 예전에 나온 책과 똑같음을 확인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다. 그 당시의 역경원 상황으로 봐서 다시 일련번호체계로 한글대장경을 완간하려는 계획도 의지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단행본 형태의 한글대장경 간행이 1994년까지 이어져 약 70여 책이 간행되었다. 1994년 정부로부터 국고지원이 재개(再開)되고 고려대장경 완역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면서 폐기했던 일련번호를 다시 붙이기 시작했고, 구판의 일련번호 형태로 되돌아가게 되었다.

## 2) 가로쓰기판 한글대장경

새로 번역 출간된 가로쓰기판 한글대장경은 1994년에서 2001년 사이에 간행된 책으로 구판의 복각본은 하나도 없고 전부 새로 번역 간행한 책들이다.<sup>14)</sup> 국고지원을 받으면서 한글대장경을 간행하려다 보니 일 년에 몇 책을 간행하고 전체 몇 책이 된다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전체 한글대장경의 통권번호를 붙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미 단행본 형태로 70책 이상 간행되었고, 아직 구판을 복간하지 않은 것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들 책들에 대해 통권번호를 부여하면서 새로 번역 간행하는 책들에 대해서도 번호를 붙여 나가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때 역시 이미 통권번호 없이 간행한 책들이 많이 유통된 상태이고 아직 간행되지 않은 경전들을 간

---

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책의 구매력을 높이도록 했던 것이다. 일종의 판매 전략이었던 셈이다. 그 시기 역경원의 재정상태도 어려웠었고 한글대장경의 판매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교육지책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었다고는 하더라도 역경원이 개인 출판사도 아니고, 더구나 대장경을 번역 간행하는 공적기관이라는 점에서 이렇게 포기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처음 나온 년도를 표기해 주고, 그 판을 그대로 이어서 다시 간행한 것임을 표기해주었어야 옳았다. 내용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으면서 단지 걸모양과 책 두께가 달라졌다고 다른 책인 것처럼 위장했던 것이다. 역경원의 아프고도 슬픈 역사의 한 장면을 보여준 증거물이라 할 수 있다.

14) 단 한 권의 예외가 있었다. 통권번호 70번 『大乘起信論疏別記 外』로, 본래 『金剛三昧經論』이라는 단행본 형태로 유통되었었는데 통권번호를 부여하면서 포제경명을 바꾸고 함께 수록된 경론들도 전부 가로쓰기 형태로 전환하였다.

행하면서 새로 번역 간행 하는 책들에도 통권번호를 붙여야 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상 제대로 발행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때 역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일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급작스럽게 결정되고, 먼저 시작해놓고 차츰 일을 진행해 나가다 보니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지만 이미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책 표지에는 통권번호를 붙일 수가 없었고 케이스에만 부별(部別)번호와 함께 통권번호를 붙이는 방법을 택하게 되었다. 이것은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던 일련번호를 다시 붙이기 시작하였으나, 확정된 편제의 일련번호에 따른 순차적인 간행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련번호가 가지는 의미는 별로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그때그때 간행되는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매긴 결과 그것을 다 취합해보니 전체 318책이 된 것 뿐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리라 본다. 이것이 오늘날 신판한글대장경의 전체 목록이 되었다.

이 신판한글대장경 속에는 고려대장경에 수록되지 않은 경들이 다수 들어가 있고, 특히 한국고승부로 분류되어 있는 한국찬술불서들이 한글대장경 속에 군데군데 혼재되어 있다.<sup>15)</sup> 이 신판한글대장경은 구판한글대장경과 마찬가지로 고려대장경의 분류체계를 따르지 않았고, 일본 대정신수대장경의 분류체계를 따르면서 남전부와 한국찬술부를 끼워 넣은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sup>16)</sup> 신판한글대장경의 부별명칭은 다음과 같다. 아함부, 본연부, 반야부, 법화부, 화엄부, 보적부, 열반부, 대집부, 경집부, 밀교부, 율부, 석경론부, 비담부, 중관부, 유가부, 논집부, 경소부, 율소부, 제종부, 사전부, 사회부, 목록부, 남전부, 한국찬술부 등 총 24부로 구성되어 있다.

---

15) ‘한국고승부’에 속하는 우리나라 고승들의 시문집(詩文集)과 논소(論疏)들은 고려대장경이 판각된 고려 중기 이후의 것은 고려대장경 속에 수록 되어 있지 않지만 한글대장경 속에는 조선 후기까지 들어가 있고, 구판한글대장경 속에 들어 있던 것과 새로 번역한 것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간행하는 형태를 취했기에 한곳에 모여 있지 못하고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형태가 되었다.

16) 『대정신수대장경』의 ‘논소부(論疏部)’ 대신에 ‘한국고승부’를 넣었고, 『대정신수대장경』과는 별도로 간행한 『남전대장경(南傳大藏經)』 속의 일부를 ‘남전부’라는 이름으로 간행하였다.

### 3. 신편제 한글대장경목록(2001~2012)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존의 한글대장경은 먼저 편제를 확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 일률적으로 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전질로서의 편제를 갖춘 대장경이 되지 못하고 말았다. 여기저기 뒤섞여 있는 형태로 간행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새로운 편제에 의한 한글대장경의 간행이 시급히 요청되는 실정이다.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시간과 인력 등 여러 가지 주변 여건에 영향 받다 보니 체계적인 간행이 불가능했고 지금과 같은 형태가 되고 말았다. 어찌 되었건 간에 고려대장경을 다 완벽한 현재의 입장에서 새로운 편제에 의한 전자책(電子冊) 한글대장경 구축은 물론 종이책 한글대장경의 간행 사업은 역경원이 해결해야할 필요불가결한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경전을 번역하기 위해 드린 공력을 생각해서도 그렇고, 종이책이 지니는 역사 문화적인 가치를 생각할 때도 그러하며, 또한 기존 한글대장경을 구입한 독자들에게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도 물론이거니와 한글대장경을 통해 한국의 불교문화를 외국에 널리 알린다는 차원에서도 새로운 편제의 한글대장경의 간행은 필수적인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입장에서 새로운 편제의 한글대장경을 어떻게 간행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할 당위성이 분명하기에 우선적으로 새로운 편제를 정하는 일이 시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새로운 편제의 한글대장경을 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한글대장경이 지니고 있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들이 슬기롭게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새로운 편제의 한글대장경 체제를 결정함에 있어 다음의 네 가지 사항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첫째, 고려대장경 속에 들어가 있는 경전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둘째, 고려대장경에는 없지만 기존에 번역한 경전도 다 포함시킬 것인가?<sup>17)</sup>**

셋째, 고려대장경과 대정신수대장경에 다 같이 수록되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sup>18)</sup>

넷째, 고려대장경에는 없지만 대정신수대장경과 만속장경(卍續藏經) 등에 들어 있는 중요 경전을 어느 범위까지 포함시킬 것인가?<sup>19)</sup>

하는 문제이다.

먼저, 순수 고려대장경 속에 있는 경전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이것은 당초의 취지나 정부로부터 국고를 지원받으면서 한 약속이나 명분상으로 볼 때는 그 대상을 고려대장경으로 한정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이렇게 해버리면 고려대장경이 조조(雕造)된 것이 800여년 전의 일이고, 그 이후에 추가되거나 찬술된 문헌들은 포함시킬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구판 한글대장경에도 고려대장경에 수록되지 않은 경전들을 상당수 번역한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꼭 고려대장경에 수록되어 있는 것만을 번역하려 했던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만약 고려대장경에 한정시켜버리면 지금까지 애써 번역한 비(非) 고려대장경 본을 완전히 배제해야 하기에 좋은 방법은 못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방법을 고수해야 할 만큼 고려대장경이 완벽한 편제

---

17)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고려대장경이 판각되고 난 이후 한국고승들의 찬술불서와 인도 중국에서 찬술된 경론을 통권번호순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想經(雜阿含의 小經455번)(5), 須摩提女經(別本)(13), 施食獲五福報經(別本)(13), 玉耶女經(別本)(13), 衆經撰雜譬喻經(18), 景德傳燈錄(79~81), 大阿彌陀經(149), 니야야빈두(151), 菩薩本生鬘論(154), 佛爲阿支羅迦葉自化作苦經(159), 奈女耆婆經(159), 巨力長者所問大乘經(159), 相續解脫如來所作隨順處了義經(161), 天台智者大師別傳(구184) 등이다. [괄호( )안의 숫자는 신판한글대장경 통권번호이다.]

18) 여기에 해당되는 경론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니야야빈두(151) 밀린다왕문경(153) 본생경, 長老偈(171), 長老尼偈(171), 重歸南海傳(구판184)

19) 이것과는 별개로 고려대장경에는 없지만 신수대장경에는 있거나 또는 신수대장경에도 없는 것 중 구판에는 들어 있었으나 신판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금강반야바라밀경운관(구159), 반야바라밀다심경찬(구156), 분충서난록(구152), 사명대사근원록(구152), 사명대사집(구152), 왕오천축국전(구184), 유심안락도(구155), 천태지자대사별전(구184), 청허당대선사보장록(구152), 청허당집(구151) 등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할 것이다.

를 지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단지 이 방식은 고려대장경을 번역했다는 명분에 충실한 말이 될 뿐이다.

다음으로, 고려대장경에는 없지만 기왕에 한글대장경이라는 이름으로 번역 간행된 전적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것이 『경덕전등록』과 ‘한국고승부’ 속에 들어 있는 문헌들이다. 전등록의 가치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고 필요한 문헌이므로 들어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고승들이 찬술한 문헌들은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문제이다. 우리나라 고승들이 찬술한 문헌 중에서도 들어가 있는 것과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구분한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구분할 것인지도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고려대장경의 편찬시기로 봐서 그 이전에 찬술된 우리나라 스님들의 문헌이 다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한국불교전서』에 수록된 신라와 고려 초기에 찬술된 우리나라 스님들의 문헌 중 고려대장경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 문헌이 훨씬 더 많이 있고, 그 후대의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많기 때문이다. 전부 빼버린다면 모를까 포함시킨다면 일정한 기준이 필요한 법이다.

이런 이유로 해서 ‘한국고승부’로 명명된 한국찬술불서들은 한글대장경 속에 포함시키지 말고 별도로 분리해서 간행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sup>20)</sup>

세 번째로 고려대장경과 대정신수대장경에 없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구판한글대장경으로 7책 분량이 되는데 대부분이 남전부 계통의 경전들이다. 남전대장경의 번역은 외부 다른 기관이나 개인 차원에서 팔리어원문에서 직접 번역 간행하고 있는 부분이기에 굳이 한글대장경 속에 넣을 필

---

20) 현재 한국찬술불서의 역주간행작업을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고, 완역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기에 신편제 한글대장경 속에 넣기 어려운 점이 있다. 신편제 한글대장경 간행 시점까지 번역된 것만 넣기에도 그렇고, 또 그렇다고 해서 다 번역되기를 기다릴 수도 없는 형편이다. 그래서 필자의 생각은 한국찬술불서, 즉 『한국불교전서』는 『신편제 한글대장경』과는 분리해서 추후에 별도로 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

요는 없지 않을까 싶다.

마지막으로 고려대장경에는 없지만 대정신수대장경과 만속장경 등에 들어 있는 중요 문헌들을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고려대장경에 들어 있지 않음에도 중요한 문헌이라 해서 『전등록』을 번역했다면 적어도 이에 상응하는 선종 문헌인 벽암록(碧巖錄), 무문관(無門關), 서장(書狀), 선요(禪要), 임제록(臨濟錄) 등도 포함시켜야 마땅할 것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다. 고려대장경에 포함되지 않은 중요 경율론 삼장을 포함시켜 번역 간행하려면 하세월일 것이다. 이는 현재의 역경원이 처한 현실을 감안할 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제반 사항을 고려해 현실 가능하면서도 보다 나은 편제로 새로운 한글대장경을 편찬 간행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본다. 종이책 한글대장경의 간행은 전자책 한글대장경과 달리 한 번 간행하고 나면 다시 간행한다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 Ⅲ. 맺는말

#### -신편제 한글대장경의 조속한 간행을 염원하며-

한글대장경의 간행역사는 한국의 불경번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규모면에서나 소요시간, 인력, 경비 등 모든 면을 통틀어서 볼 때 이렇게 일컬을 수 있다는 말이다. 번역의 충실도나 편제의 완결성은 떠난다 하더라도 일단은 37년이라는 긴 세월을 걸쳐 고려대장경을 완역하였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한글대장경 간행은 25년 가까이 현장에서 지켜본 실무자 입장에서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토록 중대한 일을 함에 있어 이 일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수 있는 인력과 재정과 기구의 구비 없이 그때그때 임시변통으로 일을 진행해 왔었기 때문이다. 시작은 거창하였으나 이를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수 있는 여러 여건이 갖추어지지 못했다는 점, 특히 진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이를

수정하고 새롭게 고쳐나가려는 의지와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 외형적으로는 한국불교 3대과업의 하나이자 숙원사업이라고 하면서도 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지극히 미미했다는 점, 종단과 동국대의 전폭적인 지원과 완비된 시스템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역경원이라는 개별 기관에서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뒀다는 점 등등이 한글대장경 간행사업을 높이 평가하기 어려운 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론 파란과 곡절을 겪으면서도 어쨌거나 동국역경원이라는 기구가 존속하며 거칠게나마 이 일을 일단 마무리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은 아니라고 본다. 지금까지 한국불교계가 처한 현실에 비춰 볼 때, ‘역경사업을 이보다 더 잘한다는 것이 도리어 이상하다’ 라는 비아냥 아닌 비아냥의 말을 사실로 인정하기 싫으면서도 사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역경원이 처한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현상계의 일이란 그 시대 상황과 동시대인들의 신심과 열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마련이다. 문제는 과거는 그러했다 하더라도 그럼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경울론 삼장(三藏)을 이렇게 두서없이 대충 해올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 현 시점에서 이를 시정할 수 있는 후속적인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함에도 아직 그러한 움직임은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사실이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누른다. 과연 우리 불교계가 역경사업에 대한 의지와 관심과 열정이 있느냐고 진심으로 묻고 싶은 것이 지금의 솔직한 필자의 심정이다. 정말 제대로 된 한글대장경을 간행하고자 하는 진지한 노력이 없다면 잘못된 줄을 뻗히 알면서 고치지도 못한 채 방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역경원이 처한 현실과 한국불교계가 지금까지 보여온 실행의 풍토로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말과 글의 소중함을 모른다면 말과 글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없다. 그 피해자는 한국불교인 전체가 될 것이고, 불교가 이 땅에서 생존하기 어려운 큰 위기에 처해지리라는 생각을 해본다. 이는 단순히 한국불교만의 비극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민족으로서의 대한민국 전체의 수준을 격하시키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1700여년이라는 유구한



## 한글대장경 목록에 대한 고찰(박종린)

역사와 전통을 지닌 종교가 제나라 말로 제대로 된 편제의 대장경을 가지지 못한다면 선대(先代)에 대한 참괴스러움은 차치하고라도 자라날 후손들에게 무슨 면목이 서겠는가.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새로운 편제의 한글대장경 간행을 위한 보다 완비된 체제를 하루빨리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개역작업을 통해 수정 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시급하다 아니할 수 없다.

**주제어** : 구판(舊版)한글한대장경, 신판(新版)한글대장경, 신편제(新編制)한글대장경, 고려대장경(高麗大藏經), 신수대장경(新修大藏經), 만속장경(卍續藏經)

[부록]

신판한글대장경 총목록

책 수	표 제 경 명	총수록 경전수	쪽수
제 1 책	장아함경(長阿含經)	1부	540
제 2 책	중아함경(中阿含經) [1]	1부(1~20권)	472
제 3 책	중아함경 [2]	(21~41권)	460
제 4 책	중아함경 [3]	(42~60권)	422
제 5 책	잡아함경(雜阿含經) [1]	1부(1~17권)	527
제 6 책	잡아함경 [2]	(18~34권)	494
제 7 책	잡아함경 [3]	(35~50권)	510
제 8 책	별역잡아함경(別譯雜阿含經)	1부	551
제 9 책	증일아함경(增壹阿含經) [1]	1부(1~25권)	520
제 10 책	증일아함경 [2]	(26~51권)	522
제 11 책	대루탄경(大樓炭經) 외	26부	494
제 12 책	불반니원경(佛般泥洹經)	38부	610
제 13 책	아라한구덕경(阿羅漢具德經) 외	85부	496
제 14 책	비화경(悲華經) 외	4부	565
제 15 책	불본행집경(佛本行集經) [1]	1부(1~29권)	462
제 16 책	불본행집경 [2]	(30~60권)	451
제 17 책	찬집백연경(撰集百緣經) 외	2부	602
제 18 책	현우경(賢愚經) 외	7부	760
제 19 책	출요경(出曜經)	1부	761

한글대장경 목록에 대한 고찰(박종린)

제 20 책	법구경(法句經) 외	4부	586
제 21 책	대반야바라밀다경(大般若波羅蜜多經) 1	1부(1~22권)	447
제 22 책	대반야바라밀다경 2	(23~50권)	522
제 23 책	대반야바라밀다경 3	(51~75권)	476
제 24 책	대반야바라밀다경 4	(76~102권)	446
제 25 책	대반야바라밀다경 5	(103~132권)	472
제 26 책	대반야바라밀다경 6	(133~165권)	508
제 27 책	대반야바라밀다경 7	(166~200권)	557
제 28 책	대반야바라밀다경 8	(201~235권)	540
제 29 책	대반야바라밀다경 9	(236~270권)	530
제 30 책	대반야바라밀다경 10	(271~300권)	507
제 31 책	대반야바라밀다경 11	(301~330권)	550
제 32 책	대반야바라밀다경 12	(331~360권)	541
제 33 책	대반야바라밀다경 13	(361~390권)	530
제 34 책	대반야바라밀다경 14	(391~420권)	552
제 35 책	대반야바라밀다경 15	(421~450권)	524
제 36 책	대반야바라밀다경 16	(451~480권)	529
제 37 책	대반야바라밀다경 17	(481~510권)	585
제 38 책	대반야바라밀다경 18	(511~540권)	598
제 39 책	대반야바라밀다경 19	(541~570권)	625
제 40 책	대반야바라밀다경 20	(571~600권)	507

전자불전 제10집(2008)

제 41 책	법화경(法華經) 외	3부	516
제 42 책	화엄경(華嚴經) [1] (60권본)	1부(1~24권)	638
제 43 책	화엄경 [2]	(25~52권)	618
제 44 책	화엄경 [3] 외	(53~60권) 9부	591
제 45 책	화엄경 [1] (80권본)	1부(1~24권)	533
제 46 책	화엄경 [2]	(25~54권)	530
제 47 책	화엄경 [3]	(55~80권)	539
제 48 책	화엄경 (40권본)	1부	621
제 49 책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 [1]	1부(1~26권)	542
제 50 책	대반열반경 [2] 외	(27~36권) 2부	433
제 51 책	대방등대집경(大方等大集經) [1]	1부(1~28권)	757
제 52 책	대방등대집경 [2]	(29~60권)	698
제 53 책	대애경(大哀經) 외	5부	657
제 54 책	아차말보살경(阿差末菩薩經) 외	6부	672
제 55 책	대집회정법경(大集會正法經) 외	8부	510
제 56 책	현겁경(賢劫經) 외	9부	458
제 57 책	유마경(維摩經) 외	4부	523
제 58 책	입능가경(入楞伽經) 외	3부	505
제 59 책	정법염처경(正法念處經) [1]	1부 (1~29권)	615
제 60 책	정법염처경 [2]	(30~59권)	632
제 61 책	정법염처경 [3] 외	(60~70권) 8부	505
제 62 책	사분율(四分律) [1]	1부(1~20권)	538

한글대장경 목록에 대한 고찰(박종린)

제 63 책	사분율 [2]	(21~41권)	587
제 64 책	사분율 [3]	(42~60권)	542
제 65 책	선견율비바사(善見律毘婆沙)	1부	524
제 66 책	구사론(俱舍論) [1]	1부(1~20권)	492
제 67 책	구사론 [2] 외	(21~30권) 10부	468
제 68 책	중론(中論)·백론(百論) 외	4부	531
제 69 책	현양성교론(顯揚聖敎論) 외	2부	471
제 70 책	대승기신론소별기(大乘起信論疏別記) 외	9부	561
제 71 책	부휴당집(浮休堂集) 외	3부	431
제 72 책	선문염송집(禪門拈頌集) [1]	1부(1~6권)	506
제 73 책	선문염송집 [2]	(7~12권)	520
제 74 책	선문염송집 [3]	(13~18권)	462
제 75 책	선문염송집 [4]	(19~24권)	474
제 76 책	선문염송집 [5]	(25~30권)	480
제 77 책	조당집(祖堂集) [1]	1부(1~10권)	414
제 78 책	조당집 [2]	(11~20권)	360
제 79 책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 [1]	1부(1~11권)	440
제 80 책	경덕전등록 [2]	(12~21권)	447
제 81 책	경덕전등록 [3]	(22~30권)	481
제 82 책	무용당집(無用堂集) 외	3부	598
제 83 책	백곡집(白谷集) 외	2부	669

전자불전 제10집(2008)

제 84 책	법원주림(法苑珠林) [1]	1부(1~19권)	621
제 85 책	법원주림 [2]	(20~37권)	603
제 86 책	법원주림 [3]	(38~59권)	631
제 87 책	법원주림 [4]	(60~80권)	590
제 88 책	법원주림 [5]	(81~100권)	629
제 89 책	경률이상(經律異相) [1]	1부(1~24권)	581
제 90 책	경률이상 [2]	(25~50권)	611
제 91 책	본생경(本生經) [1]	1부(서~1편)	532
제 92 책	본생경 [2]	(2~5편)	563
제 93 책	본생경 [3]	(6~14편)	588
제 94 책	본생경 [4]	(15~21편)	512
제 95 책	본생경 [5]	(22편)	579
제 96 책	대보적경(大寶積經) [1]	1부(1~24권)	546
제 97 책	대보적경 [2]	(25~48권)	670
제 98 책	대보적경 [3]	(49~72권)	627
제 99 책	대보적경 [4]	(73~96권)	579
제 100 책	대보적경 [5]	(97~120권)	630
제 101 책	대지도론(大智度論) [1]	1부(1~20권)	614
제 102 책	대지도론 [2]	(21~40권)	554
제 103 책	대지도론 [3]	(41~60권)	502
제 104 책	대지도론 [4]	(61~80권)	534

한글대장경 목록에 대한 고찰(박종린)

제 105 책	대지도론 [5]	(81~100권)	515
제 106 책	종경록(宗鏡錄) [1]	1부(1~25권)	523
제 107 책	종경록 [2]	(26~49권)	634
제 108 책	종경록 [3]	(50~75권)	566
제 109 책	종경록 [4]	(76~100권)	534
제 110 책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 [1]	1부(1~24권)	590
제 111 책	유가사지론 [2]	(25~48권)	593
제 112 책	유가사지론 [3]	(49~75권)	619
제 113 책	유가사지론 [4]	(76~100권)	607
제 114 책	불성론(佛性論) 외	16부	595
제 115 책	아비달마집이문족론(阿毘達磨集異門足論) 외	2부	679
제 116 책	아비달마식신족론(阿毘達磨識身足論) 외	3부	505
제 117 책	아비달마품류족론(阿毘達磨品類足論) 외	2부	687
제 118 책	아비달마대비바사론(阿毘達磨大毘婆沙論) [1]	1부(1~25권)	572
제 119 책	아비달마대비바사론 [2]	(26~50권)	587
제 120 책	아비달마대비바사론 [3]	(51~75권)	586
제 121 책	아비달마대비바사론 [4]	(76~100권)	574
제 122 책	아비달마대비바사론 [5]	(101~125권)	599
제 123 책	아비달마대비바사론 [6]	(126~150권)	580
제 124 책	아비달마대비바사론 [6]	(151~175권)	577
제 125 책	아비달마대비바사론 [8]	(176~200권)	587

전자불전 제10집(2008)

제 126 책	십송률(十誦律) [1]	1부(1~20권)	600
제 127 책	십송률 [2]	(21~40권)	684
제 128 책	십송률 [3]	(41~51권)	400
제 129 책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 [1]	1부(1~25권)	570
제 130 책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 [2]	(26~50권)	679
제 131 책	정법화경(正法華經) 외	2부	719
제 132 책	예념미타도량참법(禮念彌陀道場懺法) 외	2부	456
제 133 책	대일경(大日經) · 금강정경(金剛頂經) 외	8부	744
제 134 책	기세인본경(起世因本經) 외	5부	551
제 135 책	고려국신조대장교정별록(高麗國新彫大藏校正別錄)	1부	659
제 136 책	해심밀경소(解深密經疏) [1]	1부(1~5권)	444
제 137 책	해심밀경소 [2]	(6~10권)	544
제 138 책	해동고승전(海東高僧傳) 외	4부	479
제 139 책	대각국사문집(大覺國師文集) 외	4부	673
제 140 책	범망경술기(梵網經述記) 외	3부	523
제 141 책	화엄경탐현기(華嚴經探玄記) [1]	1부(1~5권)	454
제 142 책	화엄경탐현기 [2]	(6~10권)	445
제 143 책	화엄경탐현기 [3]	(11~15권)	460
제 144 책	화엄경탐현기 [4]	(16~20권)	460
제 145 책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잡사(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雜事) [1]	1부(1~29권)	625
제 146 책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잡사 [2] 외	(30~40권) 14부	600



한글대장경 목록에 대한 고찰(박종린)

제 147 책	십주비바사론(十住毘婆沙論) 외	2부	602
제 148 책	부자합집경(父子合集經) 외	8부	602
제 149 책	무량청정평등각경(無量清淨平等覺經) 외	21부	632
제 150 책	대승보살장정법경(大乘菩薩藏正法經) 외	9부	600
제 151 책	니아야빈두 외	3부	587
제 152 책	성실론(成實論)	1부	555
제 153 책	지혜와 자비의 말씀 외	2부	605
제 154 책	대승본생심지관경(大乘本生心地觀經) 외	20부	598
제 155 책	방광대장엄경(方廣大莊嚴經) 외	3부	641
제 156 책	과거현재인과경(過去現在因果經) 외	7부	610
제 157 책	문수사리문경(文殊師利問經) 외	19부	606
제 158 책	무소유보살경(無所有菩薩經) 외	16부	531
제 159 책	금색동자인연경(金色童子因緣經) 외	54부	530
제 160 책	보살영락경(菩薩瓔珞經)	1부	553
제 161 책	심밀해탈경(深密解脫經) 외	40부	592
제 162 책	제법집요경(諸法集要經) 외	31부	620
제 163 책	십력경(十力經) 외	64부	612
제 164 책	보우경(寶雨經) 외	3부	516
제 165 책	본사경(本事經) 외	29부	544
제 166 책	보조국사집(普照國師集)	9부	474
제 167 책	나옹화상집(懶翁和尚集) 외	4부	746
제 168 책	원감국사집(圓鑑國師集) 외	2부	680

전자불전 제10집(2008)

제 169 책	소요당집(逍遙堂集) 외	4부	633
제 170 책	반니원경(般泥洹經) 외	16부	465
제 171 책	불본행경(佛本行經) 외	3부	526
제 172 책	불퇴전법륜경(不退轉法輪經) 외	9부	480
제 173 책	수릉엄경(首楞嚴經) 외	3부	380
제 174 책	도행반야경(道行般若經) 외	3부	585
제 175 책	아비담팔건도론(阿毘曇八犍度論)	1부	694
제 176 책	아비달마발지론(阿毘達磨發智論) 외	5부	682
제 177 책	아비담심론(阿毘曇心論) 외	3부	880
제 178 책	아비달마순정리론(阿毘達磨順正理論) [1]	1부(1~20권)	537
제 179 책	아비달마순정리론 [2]	(21~40권)	493
제 180 책	아비달마순정리론 [3]	(41~60권)	566
제 181 책	아비달마순정리론 [4]	(61~80권)	536
제 182 책	아비담비바사론(阿毘曇毘婆沙論) [1]	1부(1~20권)	626
제 183 책	아비담비바사론 [2]	(21~40권)	571
제 184 책	아비담비바사론 [3]	(41~60권)	473
제 185 책	사리불아비담론(舍利弗阿毘曇論) [1]	1부(1~20권)	583
제 186 책	사리불아비담론 [2] 외	(21~30권) 1부	733
제 187 책	근본설일체유부필추니비나야(根本說一切有部苾芻尼毘奈耶) 외	5부	742
제 188 책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파승사(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破僧事) 외	3부	580

한글대장경 목록에 대한 고찰(박종린)

제 189 책	근본설일체유부니타나목득가(根本說一切有部尼陀那目得迦) 외	8부	622
제 190 책	근본살바다부율섭(根本薩婆多部律攝) 외	4부	688
제 191 책	마하승기율(摩訶僧祇律) [1]	1부(1~20권)	701
제 192 책	마하승기율 [2]	(21~40)	758
제 193 책	성유식론(成唯識論) 외	3부	478
제 194 책	대방광십륜경(大放廣十輪經) 외	16부	670
제 195 책	해탈도론(解脫度論) 외	13부	703
제 196 책	십송률(十誦律) [4]	(52~61권)	439
제 197 책	일자불정륜왕경(一字佛頂輪王經) 외	9부	418
제 198 책	유가대교왕경(瑜伽大教王經) 외	15부	469
제 199 책	수호국계주다라니경(守護國界主陀羅尼經) 외	19부	598
제 200 책	아비달마장현종론(阿毘達磨藏顯宗論) [1]	1부(1~20권)	577
제 201 책	아비달마장현종론 [2]	(21~40권)	647
제 202 책	아비달마구사석론(阿毘達磨俱舍釋論) [1]	1부(1~18권)	591
제 203 책	마하반야바라밀경(摩訶般若波羅蜜經) [1]	1부(120권)	565
제 204 책	마하반야바라밀경 [2] 외	4부(21~27권)	617
제 205 책	광찬경(光讚經) 외	6부	651
제 206 책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大乘理趣六波羅蜜多經) 외	12부	594
제 207 책	대방광보살십지경(大方廣菩薩十地經) 외	11부	588
제 208 책	대승아비달마잡집론(大乘阿毘達磨雜集論) 외	3부	694
제 209 책	대승장엄경론(大乘莊嚴經論) 외	2부	684

전자불전 제10집(2008)

제 210 책	반야등론석(般若燈論釋) 외	3부	706
제 211 책	신화엄경론(新華嚴經論) [1]	1부(1~20권)	560
제 212 책	신화엄경론 [2]	(21~40권)	533
제 213 책	보운경(寶雲經) 외	14부	565
제 214 책	십지경론(十地經論) 외	7부	595
제 215 책	삼법도론(三法度論) 외	13부	615
제 216 책	대당자은사삼장법사전(大唐慈恩寺三藏法師傳) 외	2부	486
제 217 책	속고승전(續高僧傳) [1]	1부(1~10권)	419
제 218 책	속고승전 [2]	(11~20권)	509
제 219 책	속고승전 [3]	(21~30권)	512
제 220 책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약사(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藥事) 외	2부	729
제 221 책	계소재경(戒消災經) 외	22부	581
제 222 책	석화엄교분기원통초(釋華嚴教分記圓通鈔) [1]	1부(1~4권)	380
제 223 책	석화엄교분기원통초 [2]	(5~10권)	470
제 224 책	연담대사임하록(蓮潭大師林下錄) 외	4부	629
제 225 책	초의집(草衣集) 외	9부	769
제 226 책	아비달마구사석론 [2] 외	(19~22권)1부	543
제 227 책	존바수밀보살소집론(尊婆須蜜菩薩所集論) 외	6부	613
제 228 책	대위덕다라니경(大威德多羅尼經) 외	2부	521
제 229 책	대법거다라니경(大法炬多羅尼經) 외	3부	499
제 230 책	현증삼매대교왕경(現證三昧大教王經)	1부	600

한글대장경 목록에 대한 고찰(박종린)

제 231 책	방광반야경(放光般若經)	1부	571
제 232 책	대명도경(大明度經) 외	6부	587
제 233 책	섭대승론석(攝大乘論釋) 외	2부	582
제 234 책	섭대승론석론(攝大乘論釋論)외	4부	643
제 235 책	비나야(鼻奈耶) 외	8부	532
제 236 책	미사색부화혜오분율(彌沙塞部和醯五分律) [1]	1부(1~15권)	542
제 237 책	미사색부화혜오분율 [2] 외	(16~30권) 1부	535
제 238 책	법계도기총수록(法界圖記叢髓錄) 외	6부	545
제 239 책	십구장원통기(十句章圓通記) 외	3부	532
제 240 책	여래부사의비밀대승경(如來不思議秘密大乘經) 외	20부	646
제 241 책	아촉불국경(阿閼佛國經) 외	17부	588
제 242 책	법집경(法集經) 외	5부	609
제 243 책	복개정행소집경(福蓋正行所集經) 외	10부	660
제 244 책	사익범천소문경(思益梵天所問經) 외	5부	586
제 245 책	미증유정법경(未曾有正法經) 외	24부	550
제 246 책	월등삼매경(月燈三昧經) 외	7부	706
제 247 책	대승입능가경(大乘入楞伽經) 외	6부	681
제 248 책	고승전(高僧傳) 외	3부	710
제 249 책	대승집보살학론(大乘集菩薩學論) 외	9부	643
제 250 책	입세아비담론(入世阿毘曇論) 외	12부	737
제 251 책	석마하연론(釋摩訶衍論) 외	13부	725
제 252 책	대반니원경(大般泥洹經) 외	6부	558

전자불전 제10집(2008)

제 253 책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 [1]	1부(1~20권)	488
제 254 책	대반열반경 [2]	(21~40권)	632
제 255 책	불공견삭신변진언경(不空羼索神變眞言經)	1부	645
제 256 책	대공작주왕경(大孔雀呪王經) 외	24부	541
제 257 책	다라니집경(陀羅尼集經) 외	5부	507
제 258 책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尼經) 외	45부	574
제 259 책	소실지갈라경(蘇悉地羯羅經) 외	7부	490
제 260 책	칠불팔보살소설신주경(七佛八菩薩神呪經) 외	56부	638
제 261 책	문수사리근본의례경(文殊師利根本儀軌經) 외	32부	510
제 262 책	금강수보살대교왕경(金剛手菩薩大教王經) 외	44부	518
제 263 책	금강불공삼매대교왕경(金剛不空三昧大教王經) 외	22부	635
제 264 책	불모대공작명왕경(佛母大孔雀明王經) 외	34부	524
제 265 책	칠구지불모다라니경(七俱胝佛母陀羅尼經) 외	34부	644
제 266 책	십주단결경(十住斷結經) 외	7부	462
제 267 책	대방광총지보광명경(大方廣總持寶光明經) 외	40부	593
제 268 책	살바다비니비바사(薩婆多毘尼毘婆沙) 외	2부	521
제 269 책	좌선삼매경(坐禪三昧經) 외	23부	672
제 270 책	선법요해(禪法要解) 외	19부	646
제 271 책	제경요집(諸經要集) [1]	1부(1~12권)	652
제 272 책	제경요집 [2] 외	(13~20권) 1부	682
제 273 책	대승보요의론(大乘寶要義論) 외	4부	596
제 274 책	화엄경수현기(華嚴經搜玄記) 외	4부	599

한글대장경 목록에 대한 고찰(박종린)

제 275 책	석가보(釋迦譜) 외	3부	601
제 276 책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 외	5부	743
제 277 책	집고금불도논형(集古今佛道論衡) 외	6부	675
제 278 책	홍명집(弘明集)	1부	491
제 279 책	광홍명집(廣弘明集) [1]	1부(1~15권)	522
제 280 책	광홍명집 [2]	(16~30권)	793
제 281 책	어제비장전(御製秘藏詮) [1]	1부(1~14권)	454
제 282 책	어제비장전 [2]	(15~30권)	452
제 283 책	어제연화심윤회문계송(御製蓮花心輪廻文偈頌)	1부	563
제 284 책	어제소요영(御製逍遙詠) 외	3부	473
제 285 책	역대삼보기(歷代三寶紀) 외	3부	616
제 286 책	출삼장기집(出三藏記集) 외	3부	622
제 287 책	대당내전록(大唐內典錄) 외	8부	701
제 288 책	개원석교록(開元釋教錄) [1]	1부(1~12권)	607
제 289 책	개원석교록 [2] 외	(13~20권) 2부	662
제 290 책	정원신정석교목록(貞元新定釋教目錄) [1]	1부(1~15권)	531
제 291 책	정원신정석교목록 [2] 외	(16~30권) 1부	532
제 292 책	중경목록(衆經目錄) 외	5부	612
제 293 책	일체경음의(一切經音義) [1]	1부(1~12권)	673
제 294 책	일체경음의 [2]	(13~25권)	690
제 295 책	신집장경음의수함록(新集藏經音義隨函錄) [1]	1부(1~3권)	596
제 296 책	신집장경음의수함록 [2]	(4~6권)	591

전자불전 제10집(2008)

제 297 책	신집장경음의수함록 [3]	(7~9권)	627
제 298 책	신집장경음의수함록 [4]	(10~12권)	645
제 299 책	신집장경음의수함록 [5]	(13~15권)	628
제 300 책	신집장경음의수함록 [6]	(16~18권)	514
제 301 책	신집장경음의수함록 [7]	(19~21권)	544
제 302 책	신집장경음의수함록 [8]	(22~24권)	587
제 303 책	신집장경음의수함록 [9]	(25~27권)	642
제 304 책	신집장경음의수함록 [10]	(28~30권)	557
제 305 책	일체경음의(一切經音義) [1]	1부(1~10권)	480
제 306 책	일체경음의 [2]	(11~20권)	475
제 307 책	일체경음의 [3]	(21~30권)	526
제 308 책	일체경음의 [4]	(31~40권)	450
제 309 책	일체경음의 [5]	(41~50권)	505
제 310 책	일체경음의 [6]	(51~60권)	516
제 311 책	일체경음의 [7]	(61~70권)	426
제 312 책	일체경음의 [8]	(71~80권)	461
제 313 책	일체경음의 [9]	(81~90권)	397
제 314 책	일체경음의 [10]	(91~100권)	390
제 315 책	속일체경음의(續一切經音義)	1부	407
제 316 책	대장일람집(大藏一覽集) [1]	1부(1~4권)	384
제 317 책	대장일람집 [2]	(5~10권)	463
제 318 책	일체경음의(慧琳) 색인	.	411
<b>총계</b>		<b>1,618부</b>	<b>180,673</b>